네덜란드의 마술적 사실주의U

EXHIBITION

2012 / 02 / 08

ART I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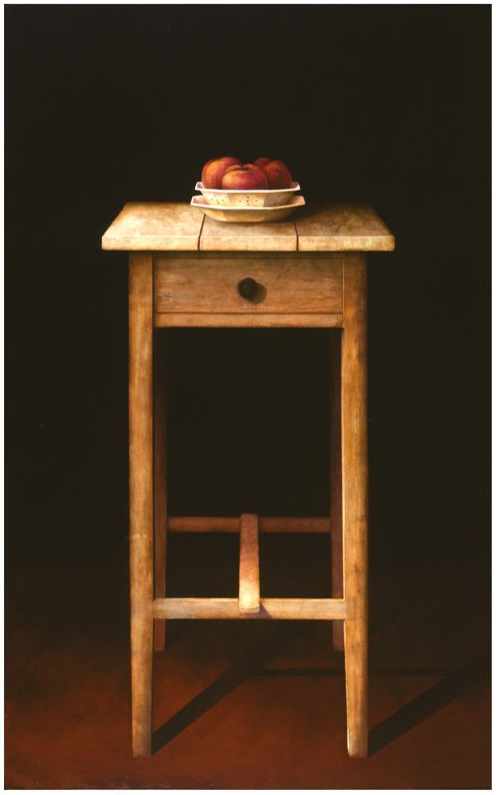
2. 10 ~ 4. 12 서울대학교미술관(http://www.snu-moa.org/Exhibition/view.asp?sType=u)



쿠스 반 쿠오렌 <아잇제와 피사넬로> 2003

네덜란드 현대미술을 특징짓는 흐름 중 하나인 '마술적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 네덜란드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1920년대 전후부터 최근까지 71점이 소개된다. 마술적 사실주의 첫 세대에 속하는 캐럴 윌링크, 윔 슈마이허, 딕 케트, 라울 힌케스 등을 비롯해 현대에 그 흐름을 계승한 필립 애커만, 쿠스 반 쿠오렌, 베르나딘 스턴하임의 작품을 포함된다.

마술적 사실주의 작품은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비논리적으로 사물들을 조합하거나 공간을 구성하여 모순적이고 환상적인 구조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20세기 유럽미술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플랑드르 미술 전통과 결합해 정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많이 제작했다.



바렌드 블랑커트 <복숭아가 있는 테이블>

쿠스 반 쿠오렌의 <아잇제와 피사넬로>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피사넬로의 작품을 모티브로 화가의 딸과 피사넬로
시대의 소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미술관
www.snumoa.org(http://www.snumoa.org/)
02)880-9508